

A Newly Developed Dressing Container for 'Enhanced Comfortability'

## ‘보다 쾌적하게’를 추구한 드레싱용기

長野 學 / 큐피(주) 연구개발본부 기술솔루션연구소 용기포장연구부

### I. 서론

일본의 큐피는 1958년에 일본 최초로 드레싱을 발매한 이래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해 용기 리뉴얼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번에 피비우스패키징주식회사, 일본클로주어주식회사, 도요제관그룹홀딩스주식회사와 드레싱 용기를 공동개발하고, 드레싱 발매 60주년이었던 2018년에 드레싱 용기의 전면 리뉴얼을 시행했다([그림 1]).

이번 리뉴얼에는 고객의 소리를 듣고 ‘보다 열기 쉽다’, ‘보다 사용하기 쉽다’, ‘보다 버리기 쉽다’, ‘보다 가볍다’, ‘보다 판별하기 쉽다’라는 시점에서 많은 고객이 ‘보다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드레싱 용기를 개발했다.

### II. ‘보다 열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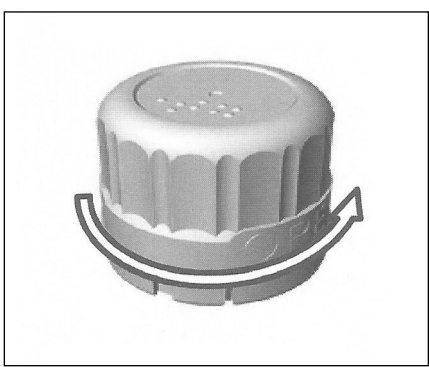
[그림 1] 가정용 드레싱 용기의 리뉴얼 전후



리뉴얼 전의 캡(비트는 캡)은 한번 오른쪽으로 돌려서 마개를 닫 다음 왼쪽으로 돌려 캡을 여는 기구였다.

이 비트는 캡은 열 때에 액체가 튀지 않고 열기 쉽다 등의 평가를 받았지만, 한편 (오른쪽으로 돌린 후에 왼쪽으로 돌린다) 개봉법을 알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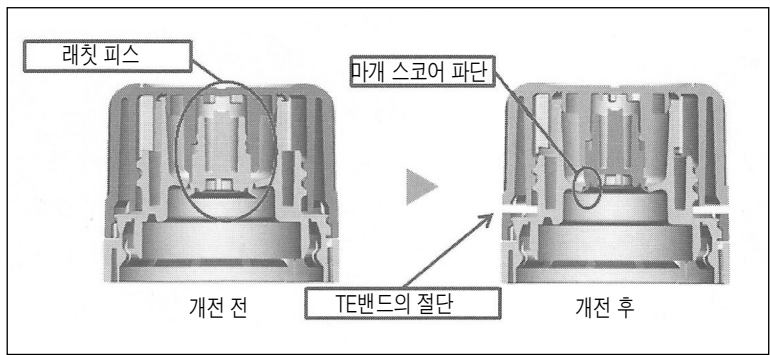
[그림 2] 열기 쉬운 캡



이번 리뉴얼에서는 캡을 왼쪽으로 돌리는 것만으로 마개가 열 수 있고, 풀링(pull ring) 없는 마개와 캡으로 했다([그림 2]). 이 풀링 없는 마개는 개전 전에는 마개 중앙부의 래칫(ratchet) 피스가 캡에 감합되어 있는 상태로, 캡을 왼쪽으로 돌리면 마개 스코어가 파단돼 래칫 피스가 캡과 함께 올라가 마개가 개전한다.

캡을 왼쪽으로 돌려 마개가 개전되는 기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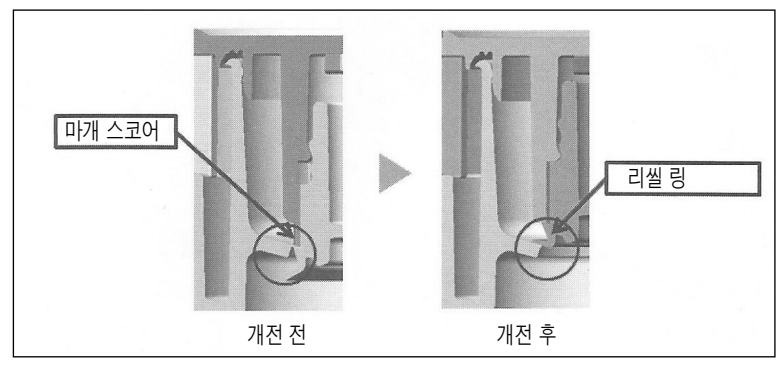
[그림 3] 마개의 개전기구



처음부터 마개가 열려있다고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탬퍼 에비던트(tamper-evident)와 최초의 개전감을 내기 위해 캡에 TE 밴드를 설치했다.

나아가 캡 본체와 TE 밴드에 ‘OPEN’이라는 각인을 하고, 캡을 왼쪽으로 돌려 열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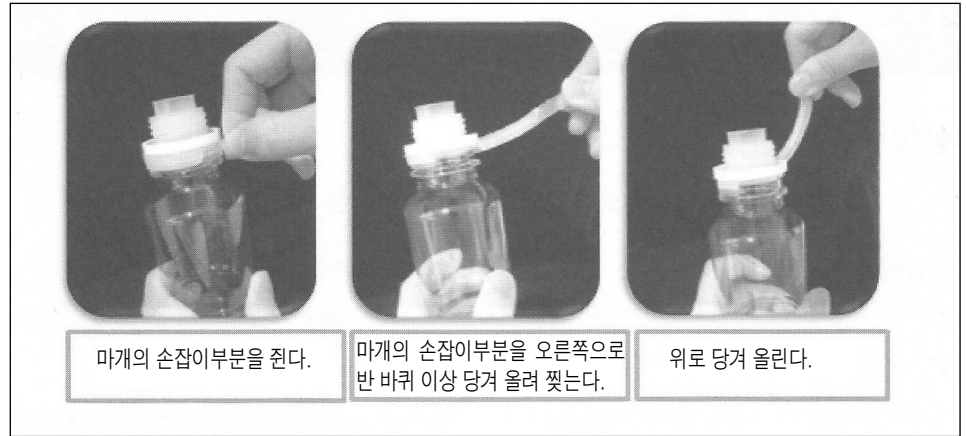
[그림 4] 리씰 기구



에 ‘OPEN’의 문자가 어긋나는 탬퍼 에비던트를 설치했다. 즉 캡을 왼쪽으로 돌리면 처음으로 ‘OPEN’의 각인이 어긋나 캡의 TE 밴드가 잘려서 분리되고, 이어서 마개 스코어가 파단돼 처음으로 캡이 보틀에서 벗어나게 된다([그림 3]).

또한 캡의 룰렛 형상은 미끄러지기 어렵고 손에 익숙한 형상으로 했다.

[그림 5] 쥐기 쉬운 마개



### III. ‘보다 열기 쉽다’

드레싱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주출구 주변부가 점점 오염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 리뉴얼에서는 리캡 시에 마개 스코어 둘레면에 리셀 링이 감합하도록 했다([그림 4]). 마개 개구부의 썰 기구에 의해 드레싱을 흔들어 섞었을 때에도 마개 주출구 내면에 드레싱이 고이지 않도록 해 캡을 열었을 때의 오염을 억제했다.

마개 주출구 끝의 R 치수를 작게 해 주출구 끝에 액체가 남는 것을 방지하고, 주출 후 액체가 흐르는 것을 억제해 주출하기 쉽게 했다.

용기 형상으로써는 잡기 쉽고 흔들기 쉽도록 보틀 몸통부에 잘록한 부분이 있는 형상으로 했다.

### IV. ‘보다 버리기 쉽다’

리뉴얼 전에는 폐기 시에 유리병에서 마개를 분리하기 위해 숟가락 등의 도구를 사용해 마개를 벗겨야만 했지만, 이번 리뉴얼에서는 마개의 손잡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반 바퀴 이상 당겨 찢은 후 위로 당겨 올리는 것으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마개를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그림 5]). 마개의 손잡이 부분을 쥐기 쉽도록 간격을 넓히고, 끝으로 향할수록 서서히 두께를 얇게 했다.

### V. ‘보다 가볍다’

이번 리뉴얼에 의해 내용량이 150ml에서 180ml로 증가해도 쥐고 운반하기 쉽도록 유

[그림 6] 캡 점자



리병보다 경량의 PET보틀로 했다. 용기로 쓰는 1개당 약 100g 경량화를 도모했다.

리뉴얼 전의 용기보다 원료 조달, 용기 제조, 용기 수송까지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을 약 20% 삭감했다.


※용기 : 보틀+마개+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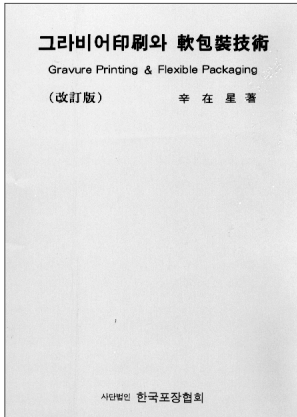
### VI. ‘보다 판별하기 쉽다’

리뉴얼 전에는 유리병에 점자를 넣었지만, PET보틀화에 의해 점자의 높이를 높이는 것이 어려워 식별하기 어려워져서 이번 리뉴얼에서는 캡 위면에 ‘소스’라는 점자를 넣었다([그림 6]).

점자를 검토함에 있어서 점자를 읽는 쪽의 의견을 듣고, 점자의 발견하기 쉬움이나 손가락의 읽기 쉬움 등을 감안해 점자의 위치나 방향을 결정했다.

### VII. 결론

최근 고령화, 글로벌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유니버설디자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번 리뉴얼에서는 ‘보다 열기 쉽다’, ‘보다 사용하기 쉽다’, ‘보다 버리기 쉽다’, ‘보다 가볍다’, ‘보다 판별하기 쉽다’라는 시점에서 많은 고객에게 ‘보다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했다. ‘보다 쾌적하게’의 추구에 끝은 없다. 고객 만족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추구해나갈 것이다. 



**서적 안내**

**그라비아 인쇄와 연포장기술**

**KOPA**  
KOREA PACKAGING ASSOCIATION INC.

**(사)한국포장협회**

· 가격 : 15,000원  
· 구입 문의  
TEL: (02)2026-8655  
E-mail : kopac@chollian.net